

사회



6일 새벽 1시 20분께 여수 백도 인근 해상을 운항 중이던 여객선 설봉호(4000t급)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다. 승객과 승무원 등 130명이 배에 타고 있었으나, 해경과 해군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여수해경 제공)

퍼펙트 구조작전 해경·해군 빛났다

6일 새벽 여수 백도 해상 대형여객선 불 130명 전원 무사

해경과 해군이 신속한 구조작전으로 새벽 불길에 휩싸인 여객선에 타고 승객 130명 전원의 목숨을 구했다. 6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여수시 백도 북동쪽 11km 해상을 지나던 4000t급 여객선 설봉호에서 화재 발생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날 새벽 1시20분께. 전날 오후 7시께 부산항에서 승객 104명과 승무원 26명 등 총 130명을 태우고 출항한 설봉호는 이날 새벽 6시께 제주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곧장 현장에 경비함 10여척을 급파해 구조작전을 시작했다. 당시 바다는 철쭉 같은 어둠이 깔려 한치 앞도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신고 30분 만인 이날 새벽 1시50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검붉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화염에 휩싸인 설봉호와 에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승객들을

발견했다. 공조 요청을 받고 달려온 제주·부산·통영해경과 해군의 경비함 등 10여 척도 때를 맞춰 합류했다. 해경과 해군은 본격적인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작전에 앞서 불이 난 설봉호 주변을 탐조등으로 환하게 비췄다. 설봉호는 겁에 질린 승객과 갈수록 치솟는 불길로 이미 이수라장이 돼있었다.

해경 등은 4~5명이 탈 수 있는 단정을 경비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설봉호 옆으로 접근했다. 긴박한 순간이었지만 침착함을 잊지 않았다. 승무원의 안내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구조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해경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단정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해경과 해군 대원들은 화재진압을 위해 화염에 휩싸인 설봉호 선미 쪽으로 다가가 물대포를 쏘기 시작했다.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동시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이뤄졌다. 다행히 파도는 잔잔했고, 바람도 비교적 약하게 불었다.

구조작전이 시작된 지 약 1시간 30분 만인 새벽 3시20분께 승객과 선원 등 설봉호에 타고 있던 130명 전원은 단정을 거쳐 317함에 무사히 몸을 옮겼다. 일부 승객이 할과상을 입긴 했으나 연기에 질식되거나 화재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구조된 승객들은 해경 경비함 등을 타고 새벽 6시께 여수항에 도착했다. 할과상을 입은 승객 10여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설봉호를 뒤덮은 불도 동이 튼 뒤 완전히 진화됐다.

이번 작전을 지휘한 김두석 여수해양경찰서장은 "해경과 해군의 침착하고, 신속한 합동 작전과 함께 승무원들

의 안내, 승객들의 협조가 조화돼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6일 목포해양경찰 3009함도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해상을 통과하다 침몰 중이던 화물선에서 죽음에 직면했던 승객과 선원 15명 전원을 신속하게 구조해 국민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사고 선박 설봉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호화 유람선으로 대우조선에 의해 지난 1998년 건조됐다. 길이 114.5m, 폭 20m 규모, 최대 589명을 태우고 시속 17.8노트로 항해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04년까지 금강산 바닷길 관광에 투입돼 속초항과 북한 고성항을 오가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멀쩡한 무릎수술 보험금 수천만원 쟁겨

전남경찰, 일당 추가 검거

브로커와 짜고 멀쩡한 무릎을 수술해 보험금을 타낸 보험 계약자들(광주일보 5월9일 6면)이 무더기로 추가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이같은 혐의(사기 등)로 J(4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구인장을 발부받아 달아난 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대부분 신용 불량자인 이들은 200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브로커가 선정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특정 병원

에서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아 1인당 3000만~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쟁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병원비와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대납한 돈 외에 수수료 명목으로 30~50%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보험계약자 가운데 7000만원 이상을 쟁긴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3월 브로커와 보험설계사, 보험계약자, 의사 등 95명을 적발,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사람이 136명으로 늘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다리털 뽑기·담뱃불 지지기·PX빵...

해병대 가혹행위 여전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7월 총기사망 사건이 발생한 해병대에서 구타 외에도 'PX빵', '안티푸라민 바르기' 등 여러가지 가혹행위가 반복적·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됐다. 또 후임이 선임에게 반말을 하거나 폭행을 하게 해 인격적인 수치심을 주면서 해병대 조직에서 배제하는 '기수열의'도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직권조사 결과 일반사회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가혹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기수열의'의 존재도 인정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는 '엽문', 담뱃불을 손에 대거나 빵을 때리는 상습적 구타, 팔꿈치로 허벅지를 누르고 아파도 참게 하는 '악기 테스트', 테이

프로 다리털 뽑기 등의 폭력이 이뤄졌다.

또 많은 양의 빵이나 과자를 강제 먹게 하는 'PX빵', 방랑제에 불 붙여 옷 입을 성기 위에 뿌리기, 안티푸라민 바르고 씻지 못하게 하기, 비타민 5~10알 강제로 먹이기, 입술 누르기, 성경책 태우기 등 다양한 방법의 가혹행위도 행해지고 있었다.

이와함께 '기수열의'가 공공연히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기수열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당사자의 진술이나, 후배가 선임에게 반말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에서는 장병에 대한 신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대 안에서 음주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피의자는 근무 중에 술적 구타, 팔꿈치로 허벅지를 누르고 아파도 참게 하는 '악기 테스트', 테이

나원침 (8391) 김중두



직무 관련 6500만원 수뢰 진도군 공무원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일괄하 도급 목인이나 수의계약업체 선정 등의 대가로 6500만원을 받은 진도군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행정안전부에 파면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진도군 과장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관리, 감독한 공사와 관련해 해당 업체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25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직무관련자에게 6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받아온 돈을 내연녀의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관내 건설업체 등에서도 3500만원을 받아 쟁긴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 일바 해고에 앙심 허위 주문전화

○전주 완산경찰은 6일 자신을 해고한 배달 음식점에 무작위로 음식을 주문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모(25·무직)씨를 검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씨는 두 달 사이 음식점 4곳에서 해고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주시 일대의 중국음식점과 피자집 등 배달음식점 68곳에 허위로 음식을 주문해 피해를 준 혐의를 뒤.

○조사 결과 이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을 피해 주문을 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해 발신번호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의 통화기록을 확보해 피해 규모를 조사중.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故 김용환 국장 장인, 충격받아 운명

김정기 전 광주시의원... 내일 함께 발인

중국 투자 유치 활동 중 순직한 김용환 광주시 투자고용국장의 장인이 사위 사망소식에 충격을 받아 운명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6일 김용환 국장 장인들에 따르면 김 국장의 장인 김정기(84) 전 광주시의원이 이날 오전 숨졌다.

김 국장의 지인은 "김 국장의 장인은 지난 4일 이역만리에서 숨을 거둔 사위의 시신이 안치되는 것을 일일이 챙겼다"며 "사위의 죽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남원군수를 역임한 김 국장의 장인은 김 국장의 뜻 부러지고 당당한 모습에 반해 딸과 백년가약을 맺도록 중매를 한 것으로 알려져 조문객들을 숙연하게 했다.

특히 김 국장의 부인은 남편의 장례도 치르기 전에 친정 아버지가 유명을 달리하자 심신해 병원에 입원했다. 김 국장 장인의 빈소는 사위의 열(광주시 서구 매월동 천지장례식장)에 마련됐고, 장인과 사위의 발인은 8일 동시에 치러진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 생존자들이 아꼈던 순간

"불과 1시간 사이에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해경 경비함을 보고 '이제 살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일 새벽 여수시 백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중 불이 난 설봉호에 타고 있던 승객 박모(43·부산시)씨는 화재 당시 끔찍한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암흑 바다서 죽음의 공포... 경비함 보고 "살았구나"

새벽시간대 영문도 모른 채 선내 방송을 듣고 달려 나와보니 배 한쪽은 불이 붙은 상태였지만, 바다 한가운데였기 때문에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박씨는 "새벽 0시40분쯤 '구명조끼를 입고 서둘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송을 듣고 갑판으로

올라갔는데 유독 가스를 내뿜는 화염이 치솟고 있었다"며 "나를 포함한 모든 승객이 갑작스런 화재에 몸서리치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긴박한 상황에서도 승객들은 평상심을 잃지 않고 차분히 구조를 기다렸으며, 노약자와 여성 등

을 먼저 대피시켰다고 그는 전했다.

박씨는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은 더욱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며 "환하게 불을 밝힌 해경 경비함이 점차 다가오는 것이 보이는 순간 '이제 모두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어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농약 범벅 중 장뇌삼 국산 속여 수익 부당이익

완도해경, 50대 검거

사용 금지된 농약 성분이 허용 기준치의 70배가 넘는 중국산 장뇌삼을 시중에 유통시켜 수익원의 부당이익

을 취한 50대해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은 중국에서 키운 장뇌삼을 수입업자에게 사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50·광주시)씨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

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중국을 오가는 수입업자 이모(50)씨로부터 장뇌삼 수천 주를 한 뿌리에 3000~5000원씩에 사 야산에 다시 심어 잠깐 재배한 후 재래시장, 약재상, 택배,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장뇌삼을 한 뿌리에 20만원을 받고 경남 울산, 부산 등 전국에 팔아 수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해경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 장뇌삼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1980년대부터 국내에서는 사용금지된 농약(린토펜)이 허용 기준치(0.1mg/kg)의 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해경은 박씨가 보관 중인 시가 1억여 원의 중국산 장뇌삼 500여 주를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군입대 앞두고 실종 20대

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

6일 오후 4시 5분께 보성군 경백면 사곡리 초암저수지에서 양모(22)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인 구조대

원이 발견했다. 양씨는 훈련소 입소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었다"는 가족의 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편입수학(미,적분과정/선형대수) Teps 대개강 (Teps + 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미인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10월 4일